



## Team Spotlight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제 29 호 | 2017.12.28

### “해외파견임직원 세무관리, 이제는 신경 써야 할 때”

기업 리스크 잡는 딜로이트 안진 해외파견임직원 세무서비스(GES)팀

최근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증가에 따라 고용, 노무 등 해외 파견 인력과 관련한 세무관리가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파견 국가 내에서 컴플라이언스 이행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그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공감대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이런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본사 차원에서 해외 파견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효과적인 정책의 수립 부분 등이 다국적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어,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이면서 명확한 솔루션이 요구되고 있다. 관련해 고객들의 문의도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해외파견임직원 세무서비스(Global Employer Service Team) 팀을 만났다.

해외파견임직원 세무서비스(Global Employer Service Team, 이하 GES)는 기업이 임직원을 해외로 파견할 때 파견 인력과 관련되는 인사, 보상, 세무, 법률 분야 이슈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비용 관리 및 한국 및 해외 파견지국에서의 컴플라이언스 준수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딜로이트의 GES는 다른 서비스라인과 달리 고객사의 본사 소재국 및 해외 파견지국의 딜로이트 회원사 GES 팀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업해 딜로이트 고유의 ‘As One Global Service Delivery’ 모델로 표준화된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해외지사로 임직원들을 파견한다면 각 국가의 세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는 해당 국가의 딜로이트 회원사 GES 팀이 맡아 진행하지만, 모(母) 기업의 소재지인 한국의 딜로이트 안진 GES 팀이 해외 딜로이트 GES 팀이 수행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 영역을 리드하면서 운영 및 관리하는 방식이다.

과거 국내시장의 경우 주로 국내로 파견되는 외국인 대상으로 진행하는 인바운드(inbound) 서비스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점차 국내 기업의 해외파견 임직원들을 위한 아웃바운드(outbound) 서비스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런 흐름에 맞게 딜로이트 안진 GES 팀은 임직원의 해외파견과 관련해 기업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딜로이트 안진 해외파견임직원 세무서비스(GES) 팀 제공 서비스]

딜로이트 안진 GES 팀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 본사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의 해외파견과 관련한 다양한 세무 이슈 및 비용뿐만 아니라, 세금, 법률, 보상, 인사정책 분야를 유기적으로 묶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Inbound 서비스	Outbound 서비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파견임직원의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li> <li>• 외국인파견임직원 세무상담 (입국/출국)</li> <li>• 외국인파견임직원 월별 급여소득세 계산 및 연말정산 대행</li> <li>• 외국인파견임직원 사회 보장세 면제신청 대행</li> <li>•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신청 대행</li> <li>• 한국파견에 인한 net-to-gross 또는 gross-to-net 급여 계산</li> <li>• 외국인출장자 및 단기 파견자 세무 신고의무 검토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li> <li>• 외국인 비자신청 대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파견임직원의 한국 및 해외 파견지국 소득세 신고 대행</li> <li>• 해외파견임직원 세무상담 (입국/출국)</li> <li>• 해외파견임직원 모국가상세액 계산</li> <li>• 해외파견임직원 월별 급여소득세 계산 및 연말정산 대행</li> <li>• 임직원 해외파견 관련 글로벌 세무 진단 및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보상 설계 자문</li> <li>• 국내기업 세금보전정책 수립 지원</li> <li>• 해외파견임직원의 글로벌 세무관리 매뉴얼 작성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보상소득 세무자문 및 세무신고 관련 임직원 교육</li> <li>• Global Mobility 세무관리 관련 회사담당자 (HR/TAX) 교육</li> <li>• 거주자 해외금융계좌신고 대행</li> <li>• 소득세 관련 예규질의 대행</li> <li>• 납세조합 신고 대행</li> <li>• 외국인 VIP 세무 서비스 : 세무신고 대행 및 개인 세무자문</li> </ul>

*“6 개월 이상 해외에 파견된 해외 주재원 수 연평균 54 만 명, 해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해외 주재원의 인사 및 세무 관리에 전문성을 갖추고 좀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 전 세계 140 여 국 GES 전문가 포진...유기적인 협조로 역량 강화

GES 는 딜로이트의 공식적인 서비스 라인으로 6,000 여 명의 딜로이트 GES 전문가들이 전 세계 약 140 여 개 국가에 포진돼 있다. 해외 파견 국가의 딜로이트 GES 팀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업무공조를 위해 모든 딜로이트의 GES 팀원은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으며, 한국공인회계사뿐만 아니라 미국 등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US CPA(미국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되어 글로벌 세무분야에 대한 이해와 역량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글로벌 업무 역량을 가진 전문가들은 외국기업과 국내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사·세무·법률 분야에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딜로이트 해외 오피스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파견지국에서 요구되는 컴플라이언스 의무, 세무위험 등을 분석하고, 절세방안 강구 등 기업의 효율적 비용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리스크를 줄이고 효율적인 인사·세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2012 년 딜로이트 안진 GES 팀은 국내 유명 대기업에서 진행했던 'Global Mobility Transformation' 프로젝트의 세무 분야 글로벌 벤더로 선정돼 딜로이트 내에서는 물론 국내 언론에서도 화제가 된 바 있다. 딜로이트 안진 GES 팀은 해외파견임직원과 관련된 보상 및 세무관리 분야에 있어 토털 솔루션을 제시하는 등 타 경쟁사들과 차별되는 강점을 내세워, 현재까지 5 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당 기업이 파견한 400 여 명의 해외파견임직원에 대한 글로벌 세무관리 (한국 및 해외파견지국 세무신고, 관련 세무자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외파견(global mobility)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딜로이트 GES 팀은 업무수행 방식, 교육, 정보 공유, 최신 기술 적용 측면에서 딜로이트만의 견고한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체계적인 글로벌 교육, 정기적인 컨퍼런스 참석 등으로 GES 팀간의 관계가 좋아 해외 딜로이트 회사 GES 팀과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동운 Manager, 이나래 Staff, 박정민 Senior, 김자영 Senior, 김지영 Senior, 왕성숙 이사, 정성혜 대리, 권혁기 이사, 강민정 Staff, 이지연 Manager, 서민수 상무, 조안나 Manager>

## 역외 탈세 No!...해외파견임직원 관리, 국내 기업들의 인식 변화 느껴

딜로이트 안진은 지난 12월 8일 서울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8층 대회의실에서 기업의 인사·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모빌리티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미 해외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나, 해외 진출을 고려중인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로 임직원을 파견 시 고려해야 할 인사, 세무 이슈를 비롯해 국내 인력들이 가장 많이 나가있는 국가인 중국 및 베트남의 인사·세무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했다.

세미나 전후 ‘세무 클리닉’ 코너를 마련해 사전에 신청한 기업의 담당자 대상으로 1:1 상담을 진행했는데, 해외파견 임직원들에 대한 세무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리스크 유무가 주된 관심사였다. 그리고, 기업 담당자들은 해외파견 임직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 관련이므로 파견을 보낸 기업이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해외 파견기간 동안 적절한 급여 지급 방법은 무엇인지, 한국 및 해외파견지국에서의 최근 세무 동향 등 다양한 주제로 상담이 진행됐다.

최근 국내 과세당국에서는 역외탈세 추징 등 국내 거주자가 국외소득에 대해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국내로 일정 금액 이상 송금되는 자료 등을 분석하여 역외소득에 대한 세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미국을 시작으로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미국은 FATCA, 미국 외 국가는 CRS)이 순차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해외파견 임직원 중에도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한국 내 금융자산정보 또는 소득을 해외파견지국 법률에 따라 적절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위험이 매우 높아졌고, 최악의 경우 미신고 규모에 따라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처럼 해외파견 임직원이 타국에서 본업 이외에 신경 써야 하는 문제들이 점차 늘고 있다. 문제는 적발 건수가 축적될 경우 파견국 내 한국 기업 평판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력의 해외파견과 관련된 기업의 세무문제 인식도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

## 최고의 글로벌 모빌리티(global mobility) 파트너로 성장 기대

국내 기업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들에 비해 해외 비즈니스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다.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인력 해외 파견에 필요한 법률, 이주, 인사, 급여, 세무를 통합 관리하는 별도의 하이브리드 조직을 두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들은 인력의 해외파견과 관련된 인사 및 세무정책이 미비한 경우가 많이 있어 비용 통제나 컴플라이언스 이행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최근 들어 기업들은 단순히 장기 파견 해외주재원에 대한 인사·세무관리만이 아닌,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표준화된 해외파견 서비스, 파견 유형별 글로벌 세무관리, 해외파견지국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진단 및 대응까지 모든 것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팀을 원하고 있다.

딜로이트 안진 GES 팀은 이런 요구에 맞게 딜로이트 네트워크와 다양한 업무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민(immigration) 서비스와 세무서비스의 연계 관리, 기업의 상황에 최적화된 해외파견 정책 수립 지원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글로벌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딜로이트 안진 GES 팀은 국내 글로벌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을 선도할 막강한 팀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This communication is for internal distribution and use only among personnel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None of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 2017.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LLC